

시민주권 정부 수립...대한민국 남부권 성장축 도약

■ 민형배 후보가 그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사결정 전면 공개·시민 참여 제도화 '열린 행정' 구현 산업용 전기 100원 시대 실현...글로벌 초첨단 기업 유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강조한다.

재정자립도 33.8%, 2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지닌 광주의 현실과 22개 시·군 중 20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과 광주가 합쳐짐으로써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가 구상 중인 통합특별시는 단순히 행정 규모가 커진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 도시다. 그 방향을 명확히 설계하기 위해 통합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우선 성장통합이다. 전남의 에너지와 자원, 광주의 AI와 산업 역량을 결합해 AI·에너지·우주·바이오·반도체 등 신산업이 연결된 거대한 일차리와 소득 생태계를 만들 구상이다. 농산어촌과 섬 지역까지 새로운 산업과 관광, 서비스 기회가 확산되는 성장 구조도 구축한다.

균형통합도 중요시 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 어느 한쪽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과 인사,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는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 원칙도 빼놓을 수 없다. 기술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에 대응해 시민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의 도전과 창업, 교육 기회를 넓히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전략을 기반으로 전남·광주를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하는 녹색도시 원칙과 시민주권통합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든다.

특히 민 후보는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떠날철 다섯 개의 기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 주권을 꼽는다.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시민이 통합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

만이 지속 가능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때문에 1호 공약으로 '시민주권 정부 수립'을 내 걸었다.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의사결정을 전면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특히 4명의 부시장에 대해 시민 추천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인사 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민주당의 '당원주권'에 이어 '시민주권'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민 후보는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기업 유치에도 집중한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중심 글로벌 초첨단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 100원 시대'를 열어 나갈 구상이다.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산형 전력망'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실현한다.

그가 도입하려는 분산형 전력망은 태양광 발전과 ESS 저장 전력, 기존 계통 전력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들 전력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을 경우 연평균 전력 단가가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춰지며, 운영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kWh당 180원 정도이니 절반 가까이 저렴해 지는 셈이다.

또 한가지 조건으로 그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거래까지 전담하는 플랫폼인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을 총괄하는



14일 오후 민형배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선거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역할을 맡아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단 전력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 민 후보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기업에 값싼 RE100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첨단 산업과 대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부산·여수·해남·광주를 잇는 'AI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해 에너지와 데이터가 결합된 첨단 산업 인프라도 완성해 나간다.

민 후보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장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하나의 중심도시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동부·서부·중부·광주권역으로 역할을 나누고 성과를 순환시키는 구조로

설계할 방침이다.

먼저 동부권은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제조 전환과 수출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도 남부권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치해 우주항공, 첨단 제조, 미래 소재 산업 등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산업 전환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부권은 목포·신안·영광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이자 글로벌 관문 산업권으로 발전시킨다.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거래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센터와 AI·클라우드 산업이 결합된 에너지 기반 데이터 산업 거점을 구축한다.

중부권은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바

이오 산업과 치유 산업이 결합된 친환경 생활경제 권으로 육성, 스마트 농업과 식품·바이오 산업을 연결해 농촌 지역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할 구상이다.

광주권은 AI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AI 실증 전환도시이자 스마트시티로 키워 나간다. 국가 인공지능 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거점을 유치해 산업과 행정, 도시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미래 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권역별 균형발전론을 통해 민 후보는 제조·에너지·녹색·문화가 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신경제 구조'를 구축,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행정통합 담론 속 변화·혁신 전략 통했다

■ 민형배 후보 승리 요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에서 민형배 후보가 승리한 요인으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과감하고 혁신적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는 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과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선이 진행될수록 정책과 비전의 설득력은 쌓여 갔고,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동력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평가다.

예컨대 '100원 전기요금 시대 실현'이란 정책을 발표했을 때 "태양광 70%, ESS 저장 전력 10%, 계통 보완 전력 20%를 이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수치를 데이터화해 제시했다는 것이다.

TV 토론회에서 20조원 규모의 통합인센티브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80%를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제 육성과 사회 안전망에 10%씩 배분하는 '8:1:1 전략'을 소개하며 모호한 담보다 수치화한 데이터를 통해 유권자를 설득, 정책 신뢰도를 끌어올려 당원과 민심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경선 과정에서의 연대 구도도 승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율을 지역구로 둔 그가 전남 동부권 대표주자였던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를 이룬 점도 주요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 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TV 토론회에 앞서 주철현 후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데이터 기반한 실현 가능 미래 청사진 제시 '주효' 주철현과 단일화·권역별 공약 등 전남 표심 흡수

남 동부권으로 확대되면서 세 확산이 바람을 타고, 전남권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며 이 결과가 바람을 타고 경선 막판까지 계속되며 여론을 형성한 점도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20조 시민 기획 경제투어'를 통해 지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권역별 목소리를 청취한 점도 권역별 표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권역별 공약도 세밀하게 구성해 각 지역이 나아갈 방향성, 바뀔 미래 모습을 자세히 제시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40년 만의 전남, 광주가 하나가 되는 상황에서 안정보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유권자들의 마음도 표심으로 반영됐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민형배 후보는 누구

전남광주 확 바꿀 '혁신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개혁·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기자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뒤 시민운동가, 기초단체장,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쌓아온 복합적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해 늘 선명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민주주의, 자치, 제도 개혁이다. 매번 이슈 속에서 거침없는 언행으로 치열하게 투쟁, '전투토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기자·시민운동가 출신...당정청 '복합 경험' 강점 호남 국회의원 처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

'일조 전명'으로 분류되는 민 후보는 1961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해남마산초등학교, 해남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전남대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대학 시절 5·18을 경험한 그는 이후 기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전남일보에서 12년 동안 활동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언론계를 떠난 그는 시민사회로 자리를 옮겨 참여자치21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에 앞장섰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며 중앙과의 접점을 넓혀나갔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광산구청장 시절이다. 2010년부터 8년간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최초'의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해왔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장 직선제 등은

지방자치의 실험이자 성과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치발전·사회정책비서관을 맡게 되는 발바탕이 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노승일 후보를 꺾고 전국 최고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본회의 출석률 100%, 법안 발의 건수 1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 모두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검찰 개혁 국면에서의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수완박)의 안전조절위원회 통과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할 정도였다.

이는 그의 정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으며 안전조절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발휘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단번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일로 2023년 민주당으로 복당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와 함께 거론될 만큼 '일조 전명' 이미지를 굳혔다.

22대 총선서는 한때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이산하 전 새누리당 대표의 도전을 받았으나 여유있게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으나 비수도권 후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성에 실패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는 검찰개혁특별위원장으로 임명,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결선 승리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그는 통합특별시장 초대 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